

2018년 제30회 아산상 부문별 수상자 현황

부 문	수상자(단체)	주요 공적내용
아 산 상	이시돌농촌산업개발협회	아일랜드 출신의 맥그린치(1928~2018) 신부가 빈곤 속에 살아가는 제주도민들이 가난을 벗어날 수 있도록 1962년 이시돌농촌산업개발협회를 설립하여 목축업, 면양 수직업, 협동조합 등을 통해 지역개발 사업을 이끌었고, 1970년에는 의료 시설이 열악하던 제주도에 성이시돌의원을 설립해 치료받기 어려운 극빈환자들을 무료진료하였음. 이후 제주도에 의료시설이 많이 들어서자 2002년 제주도 최초의 호스피스 의원으로 전환하여 시한부 선고 암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무료 입원진료를 시행하며 제주도의 취약계층 건강증진에 기여함.
의료봉사상	이재훈	2005년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로 출국해 의료혜택을 받기 어려운 오지 지역을 찾아다니며 이동진료를 통해 5만여 명을 진료 및 수술해 왔음.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마다가스카르 정부와 현지 의사를 훈련해 무의촌을 찾아가는 이동진료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저개발국 의료소외지역의 보건의료 증진을 위해 헌신해 오고 있음.
사회봉사상	허보록	프랑스 출신의 가톨릭 신부로 1993년부터 25년간 경북 영주와 안동, 경기 군포와 과천에서 가족해체나 학대, 방임 등으로 가정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소규모 가정 형태의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을 제공해 200여 명의 소외 아동·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성장해 자립하는데 기여해옴.
복지실천상	오명원	뇌성마비 장애인이면서 저소득 뇌성마비 장애인들의 교육과 재활에 기여함.
	오미경	30여년 동안 장애인 및 부모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바탕으로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
	이미경	국내 유일의 장애인복지관 상근의사로 30년간 근무하면서 장애인복지와 재활에 기여함.
자원봉사상	한국상록회	48년간 취약지역 주거환경개선, 저소득 청소년 장학사업, 이미용 봉사활동 등을 전개하며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힘써옴.
	이영수	보일러기술 명장으로 1998년부터 직장을 잃은 사람들에게 무료로 기술을 가르쳐 자립할 수 있도록 도움.
효행·가족상	박유순	결혼 후 20여년간 시모를 돌보았으며 남편과 사별 후에도 8남매를 헌신적으로 양육해 화목한 가정을 꾸려옴.
	윤애경	뇌병변 장애를 가진 남편을 30년 넘게 간병하였으며, 의료봉사단을 만들어 직장 내외의 봉사활동에도 적극 참여함.
	김희선	베트남 출신 이주여성으로 두 다리를 잃은 남편을 헌신적으로 내조해 남편이 2018년 평창 동계패럴림픽에서 사상 첫 금메달을 획득하는데 기여함.